

【 해외금융 뉴스: 복미 】

국제조율 불구, 신흥국 핫머니 유입 차단조치 증가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율과 무역정책 등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핫머니 유입을 경계한 신흥국들의 외국 자본유입 차단조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재무장관회의 등에서 시장에 의한 환율 결정문제와 대규모 무역적자국과 무역흑자국 간의 이해관계 조율 등에 대한 진전이 있어왔으나, 이러한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미국 국채매입계획에 따른 핫머니 유입을 경계하면서 자국 경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입은 자국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추가경기부양조치 이후 외국자본 유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임.
 - 대만은 이번 주 외국인의 채권보유액에 한도를 부과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브라질과 태국이 자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였고 한국은 6월 외국인의 파생상품 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등 각국은 급격한 외국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함.
 - 또한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 중앙은행도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달러를 매입하고 있으며, 중국도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이번 주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상향함.
- 핫머니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도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불균형에 의해 야기된 긴장관계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음.
 - IMF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용을 옹호하는 입장이며 자본시장 개입을 반대해왔으나 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자국 채권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허용하는 상황임.
 - 1999년 이후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7%에 달하는 경제 성장으로 단기금리가 1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핫머니 유입으로 브라질 레알화는 연초대비 35%가량 절상되면서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경제가 곤경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됨.

(Wall Street Journal, 11/10)